

# 2022 Social Economy Research Report

# 사회적경제 연구리포트

경제위기와 사회적기업의 회복력



2022. 11.  
vol.3

발행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작성 | 정책연구본부 조사연구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경제위기와 사회적기업의 회복력

정책연구본부 조사연구팀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데이터 기반 연구는 미흡한 실정

## ☑추진목적

-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경기변동에 대한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의 경기변화에 따른 회복력을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시사점을 도출

## ☑연구방법

- 사회적기업의 회복력 관련 개념 및 연구동향 분석과 2007년 ~2020년 경기변동, 노동시장,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데이터 기반 회복력을 검증 및 확인

## ☑연구변수

- 경제위기를 보기 위한 경기변동 변수는 실질GDP성장률, 명목GDP성장률, 회복력 변수는 고용, 임금, 영업성과

## ☑국내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분석

- ① 경제위기 시 총고용률과 총실업률은 경기충격 후 1~2년 후 회복하며, 여성고용은 경기변동과 무관함
- ② 경기변동과 평균임금은 상호독립적이나, 코로나19 위기 시 2% 미만으로 물가상승 미반영

##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 ① (저변확대) 경제위기 시 사회적기업 수 및 전체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국가 경제규모 확대에 기여
- ② (고용회복력)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경기충격에 독립적이며, 우리나라 총고용률보다 큰 폭으로 고용증가율 상승
- ③ (임금회복력) 경제위기 시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 지원
- ④ (사회적기업 영업성과와 지속가능한 회복력) 5억 이상 기업규모 확대 및 민간자원 확보로 지속적인 시장적응 및 회복력 확보

## ☑향후과제

- ① 사회적기업 양적규모 확대
- ② 사회적기업의 질적성장 지원책 마련

### □ 연구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은 사회적기업에게 경기둔화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도전을 선사하였다.
-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고 있다.
- 더불어 국내에서도 경제위기 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위기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 연구목적

-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복력의 개념 및 사회적기업 회복력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회복력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국내 사회적기업의 경기변화에 따른 회복력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특히, 사회적기업의 고용, 임금,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 본 연구의 시계열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2007년~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데이터에 기반한 시계열 흐름을 살펴보고자 함

### □ 연구방법

-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 및 연구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의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다.
- 2007년~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 경제위기 측정을 위한 경기변동 변수는 실질/명목GDP성장률(2007년~2020년), 회복력 측정변수는 고용, 임금, 영업성과 변수를 사용하여 시계열 흐름별 성과를 살펴보면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사회적기업 회복력 개념 및 연구동향

### □ 회복력의 개념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은 생태학 분야에서 Holling(1973)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후, 심리학, 사회학, 조직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회복력은 생태학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론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권진우 외, 2021).

다수의 학자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는데, Martin & Sunley(2015)가 제시한 회복력의 정의가 제일 보편적이다. 본 개념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회복탄력성을 충격 이전 수준 또는 경향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회복력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적응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회복력은 하나의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경기하강의 폭이 감소하는 경우 얼마나 빨리 충격에서 회복하느냐이다(우영진 & 김의준, 2017).

한편 회복력과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 지속가능성 개념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개념은 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현존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비해 회복력(회복탄력성)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처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위협요인을 줄이는 것을 추구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전은주, 정봉현 & 나주몽, 2016; 권진우 외, 2021).

### □ 회복력 연구 동향

국내 회복력 연구는 2000년경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자연재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가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측정하는 경제분야의 연구는 충격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회복의 속도를 가늠하는 정량적 접근 방식이 사용되는 데 비해 경제 외 분야에서는 정성적인 접근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회복력에 대한 많은 논의 중 결정 요인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항목은 산업구조이다. 1990~2011년 사이 15개 시도의 총부가가치 증감률과 취업자 수 증감률이 변화하는 양상을 토대로 지역 회복력을 진단한 결과 점차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가 깨지는 대신 산업구조 전환에 성공한 지역과 기존 산업 구조에 갇힌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확인했다(김원배 & 신혜원, 2013).

한편 정해진(2016)은 1990~2015년 사이 발생한 세 번의 경제위기 시 지역의 고용 수준이 충격을 받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 현상이 충청권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제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진우 & 이슬(2020)은 개별 시·군·구의 회복력에 차이가 있으며, 시·군·구의 노력에 따라 회복력이 더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상용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회복력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진우 외(2021)는 경기도 지역의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의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코로나 확산이후에도 상용직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가 감소가 더 큰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여성인력의 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가 경제위기 시 회복력이 있는지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 사회적기업의 회복력 연구

사회적기업과 위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상, 경제위기, 인종차별, 자연위기와와의 관계를 주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Weaver & Blakey, 2022).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는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는 정부와 시장의 도움의 손길이 도달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Weaver, 2020). 영국의 사회적기업 협의회는 격년으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도전과 회복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회복력 측정을 위해 매출증가, 설립기업 수 증가, 스케일링 업(종업원 규모, 평균매출, 시장점유율), 수출확대 등의 항목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본 결과는 전체 사회적기업 중 44%가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35%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을 현상유지 하여 사회적기업의 높은 회복력을 입증하였다 (영국사회적기업 협의회, 2021).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체 조사대상기업들이 수출분야에서도 '19년 (17%) 대비 '21년(22%)로 증가 하였으며, 스코틀랜드 내 사회적기업의 41%, 런던 내 사회적기업은 32%의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Social Economy Europe(SEE)은 2020년 SEE Report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등 13개 국가 및 터키와 유럽 수준기구 1개가 협력하여 27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1%는 코로나19가 기업의 고용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14.5%), 교육 및 훈련(14%), 청소·보안 및 기타 개인 서비스(13%)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기업들은 회사 내 고용측면의 위기 대응을 주로 일시적 실업(31.5%), 활동중단(18%) 근로시간 단축(14%)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회사 비즈니스의 회복가능성에 전체기업 중 43%는 몇 달 안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40%는 회복가능성에 확신이 없었고, 15%는 회사 비즈니스의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기존 중소기업에 포함한 정부지원보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적합한 지원제도의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주요 국제기구들은 사회적경제의 역할 확대와 통계 취합 등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ILO는 2021년 코로나19

## II. 사회적기업 회복력 개념 및 연구동향

위기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이 있는 인간 중심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ILO 글로벌 행동을 촉구 하였다. 이 같은 ILO의 선언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정의, 양질의 일자리, 생산적인 고용 및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함을 명시하고 있다(ILO, 2022).

국내에서는 조영복(2021)이 코로나19 상황의 국내 사회적경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과제를 도출하는 이론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은 호혜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담보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는 계량 시계열 확보의 어려움으로 횡단면적인 실태조사와 사례연구(Kishnani, 2021; Borzaga & Tallarini, 2021) 및 이론연구(조영복, 2021)가 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사회적기업 시계열 흐름을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회복력을 살펴볼 것이며, 특히 경제위기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III. 국내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분석

### □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본 연구는 경기변동 추이를 실질GDP성장률과 명목GDP성장률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경기변동 시계열 중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2019년 코로나19 위기의 경기충격이 노동시장의 미치는 영향과 회복의 시기를 시계열 흐름으로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의 회복력 지표와 비교하고자 한다.

\* 노동시장 지표는 주로 노동시장 변화를 측정하는 고용률과 실업률 및 평균임금상승률과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화를 경기변동 지표와 함께 측정하고자 함

\*\* 경제위기(경기충격)는 제1기(2008년 금융위기), 제2기(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제3기(코로나19 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 경기변동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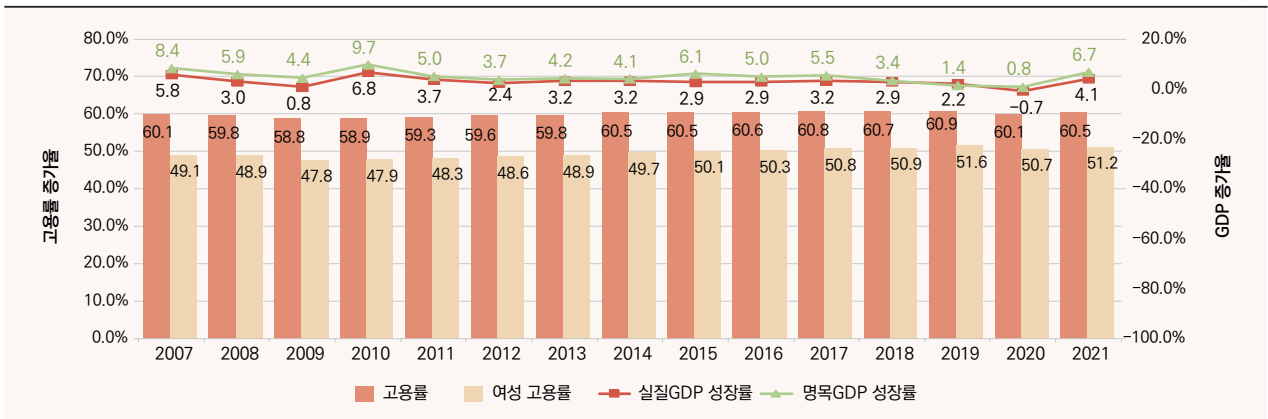
- **(경기변동과 고용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2007년~2021년 국내 주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제1기 2008년 금융위기, 제2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제3기 2019년 코로나19의 위기 전후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하락 후 1~2년 주기로 회복을 경험하였다.
- **(경기변동)** 경기변동 시계열을 살펴보면, 2008년~2009년 경기충격이 지속되고 2010년 회복되며, 유럽발 재정위기 전후 2011년~2012년까지 경기충격이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2013년 회복되는 반면 코로나19 위기는 2020년 경제충격 이후 2021년 경기가 회복됨을 알 수 있다.
- **(경기변동과 고용률)** 경제위기의 충격에 따른 총고용은 제1기 2008년 하락 후 2009년까지 담보하다 2010년 회복 하였으며, 제2기 2012년은 당해년도 충격 후 2013년 회복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제3기 코로나19 위기 시점에는 경기충격 이후 2020년 경기가 후행하고 2021년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다.
- **(경기변동과 여성고용률)** 경제위기의 충격에 따른 여성고용은 제1기 2008년~2010년까지 소폭 하락 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소폭 상승하고 있어, 제1기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와 연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경기변동과 실업률)** 경제위기 충격과 총실업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기 경제위기(2008년)이후 2008년 3.2%에서 2009년 3.6%로 상승하였으나, 제2기 경제위기(2012년)이후 2012년 3.2%에서 3.1%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제3기(2019년) 이후에는 2019년 3.8%에서 2020년 4.0%로 경기충격이 실업률을 증가시켰다.
- **(경기변동과 여성실업률)** 경제위기 충격과 여성 실업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기 경제위기(2008년)이후 2008년 2.6%에서 2009년 3.0%로 상승하였으나, 제2기 경제위기(2012년)이후 2012년 3.0%에서 2.8%로 오히려 소폭 하락 하였다. 한편 제3기(2019년) 이후에는 2019년 3.6%에서 2020년 4.0%로 경기충격이 실업률에 바로 반영되었다.

### Ⅲ. 국내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분석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경제위기 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자영업자 수는 축소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점차 확대되어 경제위기 시 고용불안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위기 vs 임금근로자)** 우리나라의 IMF 경제충격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위기 시 상용직 비율은 감소하고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증가한다(황선웅, 2009). 그러나 본 연구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2021년은 경제충격으로 인한 고용 조정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경기변동과 총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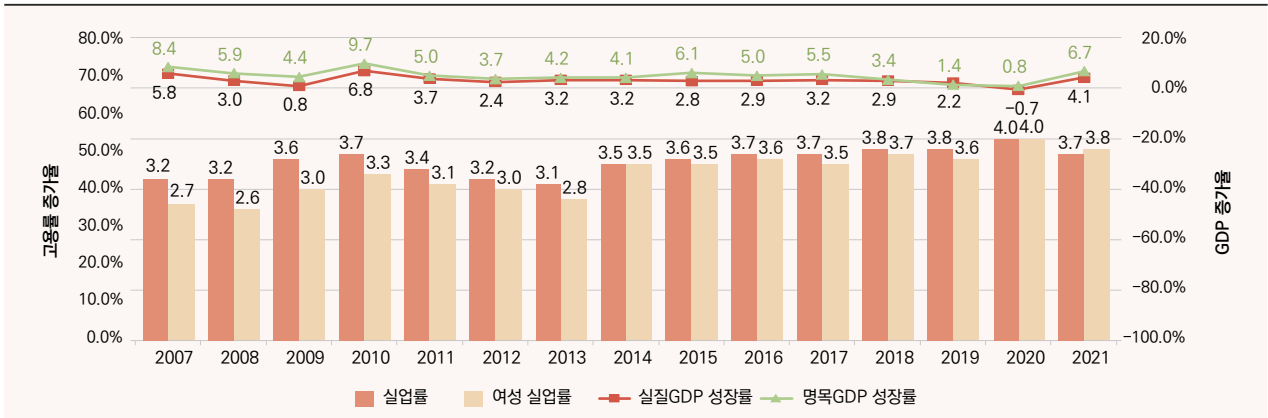
단위 : %



\* 자료원: 『인구총조사』 통계청

<국내 경기변동과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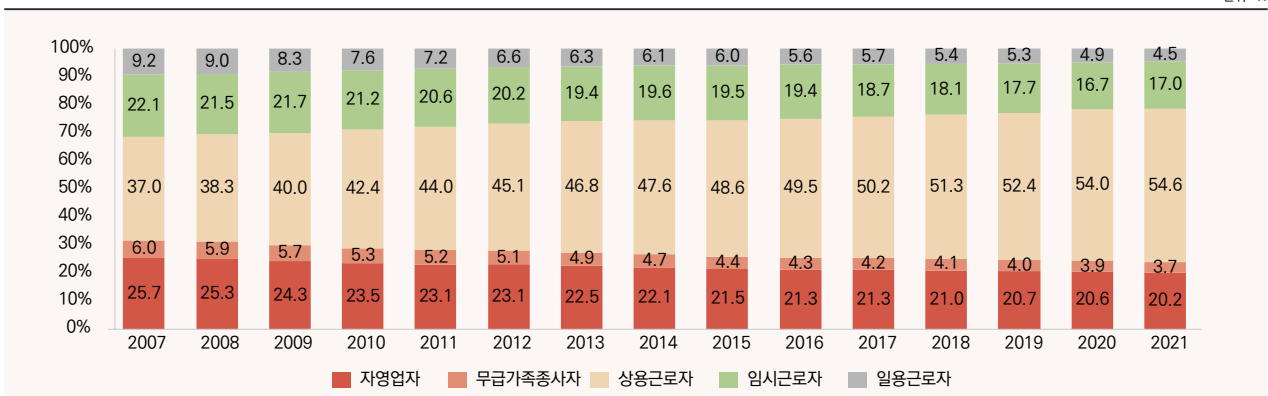
단위 : %



\* 자료원: 『인구총조사』 통계청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단위 : %



\* 자료원: 『인구총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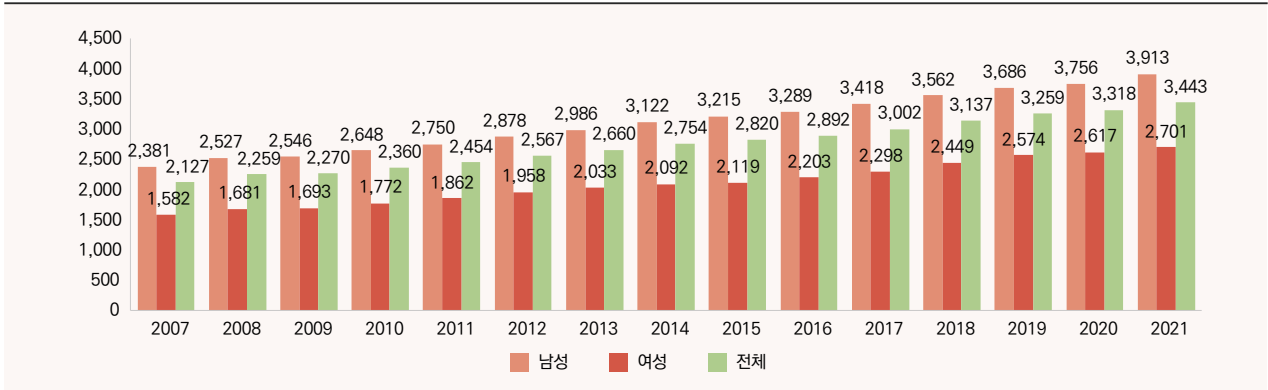
### Ⅲ. 국내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분석

#### □ 경기변동과 임금

- **(평균임금 증가율)** 경기변동과 임금은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총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은 2%, 남성 1.8%, 여성 1.7%로 큰폭으로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
- **(성별 평균임금 증가율)** 성별 총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추이는 같은 방향이나 2014년, 2015년, 2020년은 여성평균임금 증가율이 남성보다 낮다.

<전체, 남성, 여성 월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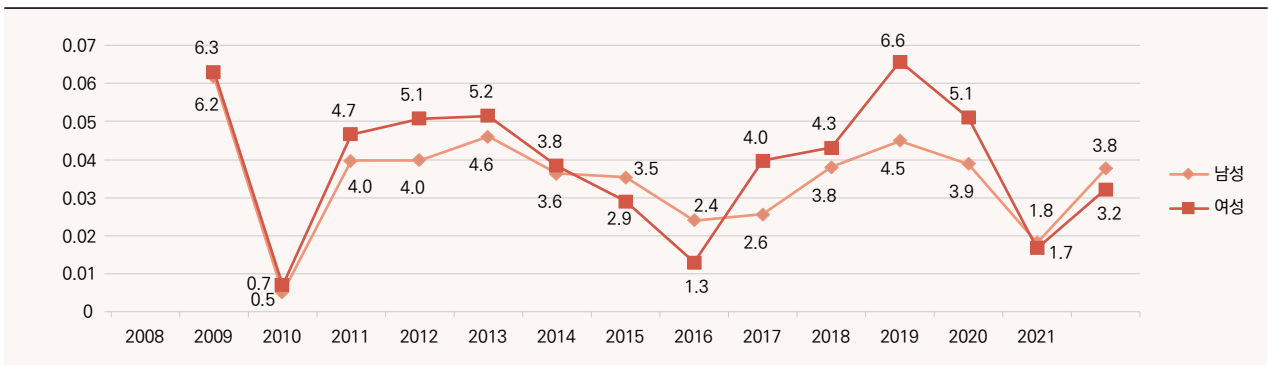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자료원: 『인구총조사』 통계청

<남·여 총근로자 평균임금 추이>

단위 : 천원



\* 자료원: 『인구총조사』 통계청

#### □ 시사점

- **(경기변동과 고용)** 경기변동과 총고용은 경제충격 이후 1~2년 후 회복되나, 여성고용은 2011년 이후 경기변동과 독립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 **(경기변동과 실업)** 제1기(2008년 금융위기), 제2기(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제3기(코로나19 위기)기간 중 제2기를 제외하고 총실업률 및 여성실업률은 경기충격 이후 1년 후에 회복을 경험했다.
  - **(사회적기업 분야 검토 초점)**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총고용 변동을 살펴보고, **취약계층 및 여성 고용의 비중이 큰 사회적기업과의 차이 및 회복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경기변동과 임금)** 경기변동과 평균임금은 무관하게 움직이나, 남·여의 임금상승 방향은 유사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 평균상승률이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 **(사회적기업 분야 검토 초점)** 경기변동과 임금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변동과 차이를 살펴보고, 취약계층 및 여성고용의 비중이 큰 **사회적기업의 평균임금 상승률과의 차이 및 임금보전 노력 등의 회복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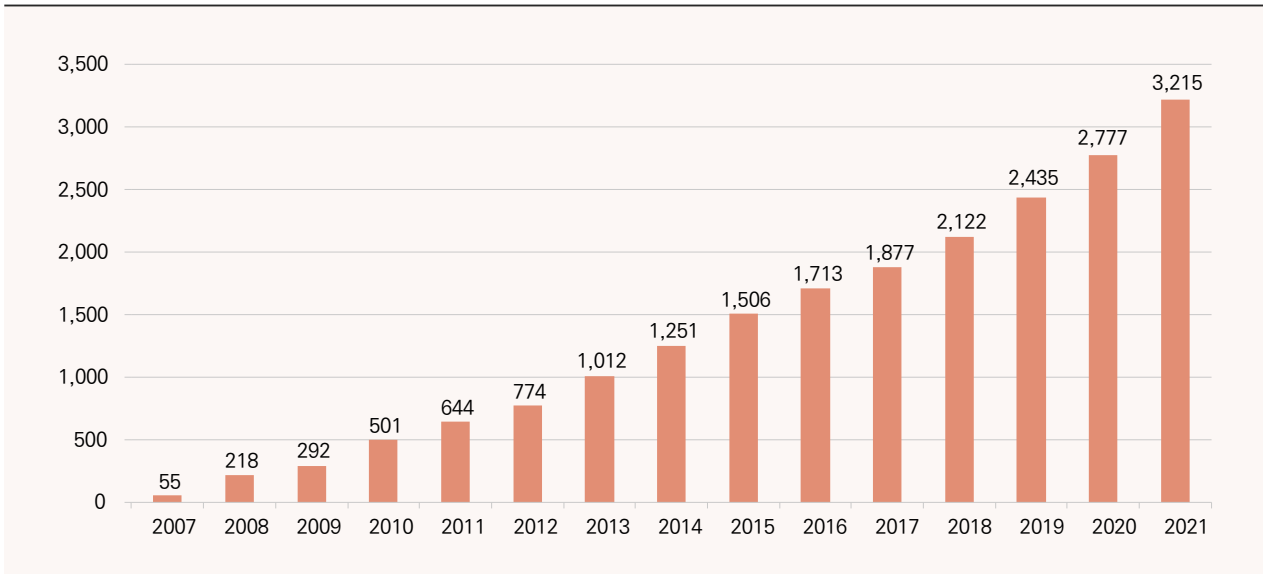
## IV.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 □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

- (인증기업 수)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21년말 전체 사회적기업 수는 3,215개소로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이다.
  - 1천개소까지 7년, 2천개소까지 5년, 3천개소까지 3년이 걸려 사회적기업의 확대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 경제위기(경제충격)은 제1기(2008년 금융위기), 제2기(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제3기(코로나19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 ('07년) 55 → ('13년) 1,012 → ('18년) 2,122 → ('20년) 2,777 → ('21년) 3,215개소

&lt;사회적기업 수&gt;

단위 :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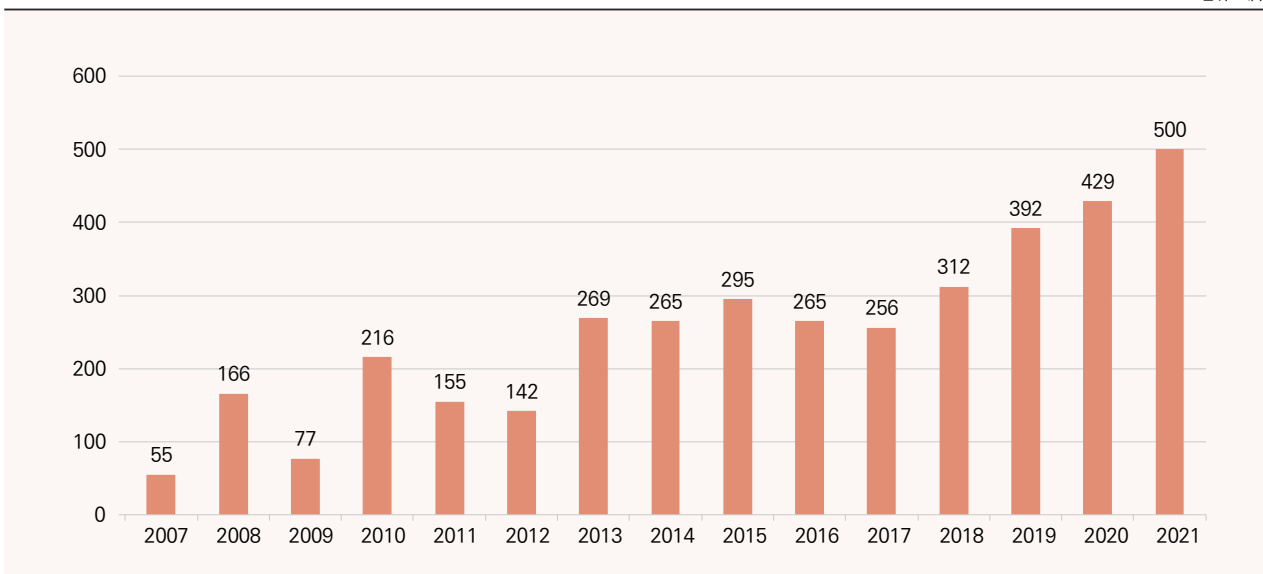


\* 자료원: 사회적기업 인증공고, 2021.29. 고용부 보도자료

- (신규 인증기업 수) 사회적기업은 제3기 코로나19 위기 전후 신규 인증기업 수가 대폭 증가하여, 경제위기 시 안정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lt;신규 인증기업 수&gt;

단위 : 개수



\* 자료원: 사회적기업 연도별 현황, 사회적기업 인증공고



## IV.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 □ 사회적기업의 고용 회복력

- (전체근로자 수) '20년 현재 전체 근로자 55,40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3,206명으로 '07년 대비 총고용은 21.8배 취약계층 고용은 23.7배 증가하였다.
- (총고용증가율) '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고용증가율은 경제위기 시마다 충격에 노출되는 반면, 사회적기업의 총고용증가율은 경제위기 시에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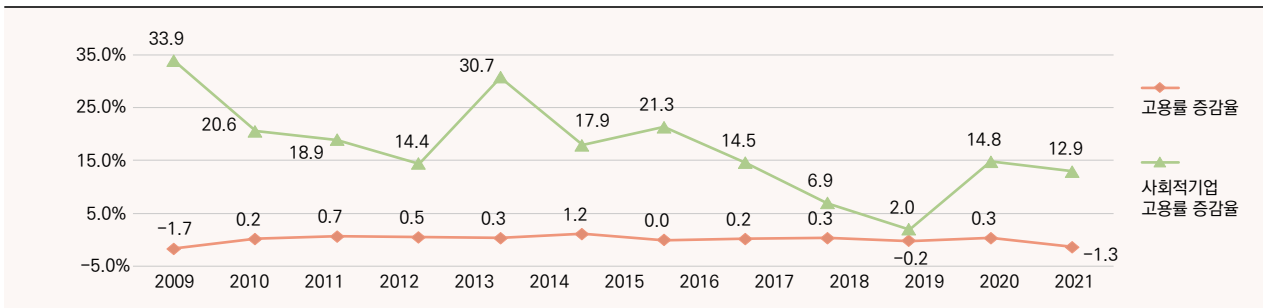
\* ('09년) 33.9% → ('13년) 30.7% → ('18년) 2% → ('19년) 14.8% → ('20) 12.9%

-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 증가) 경제위기 시 취약계층, 여성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 2022) 반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고용률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은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전국경제인연합회, 2022)

&lt;국내 총고용증감률 vs 사회적기업 고용증감률&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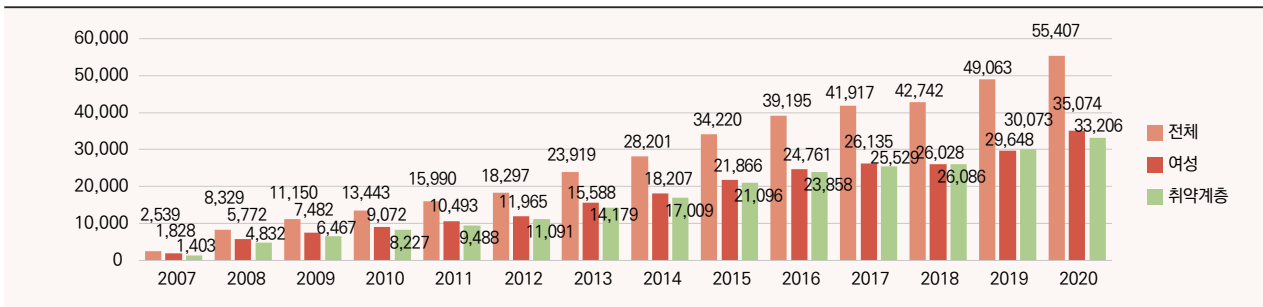
단위 : %



\* 자료원: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lt;전체 유급근로자, 여성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 수&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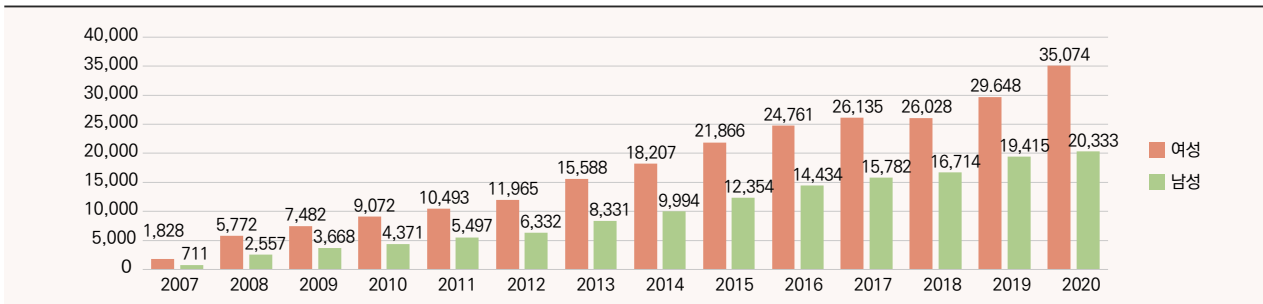
단위 : 명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lt;사회적기업 성별 근로자 수&gt;

단위 : 명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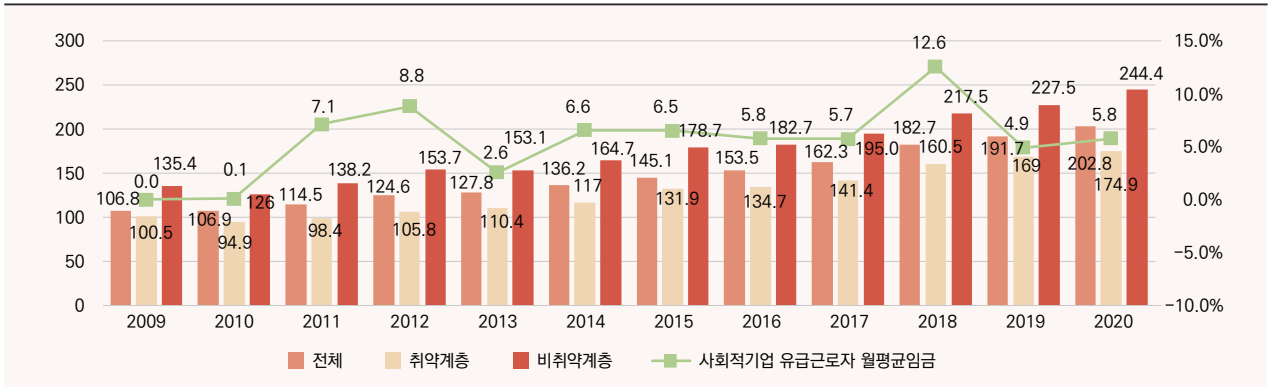
## IV.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 □ 사회적기업의 임금 회복력

- (평균임금)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년 2,028천원으로 '07년 대비 76.4% 증가하였다.
  - 제2기 유럽발 금융위기 시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1%, 제3기 코로나 위기에도 평균임금은 5.8%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 평균임금도 3.6% 상승하였다.
  -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의 증가폭은 제2기 2012년 유럽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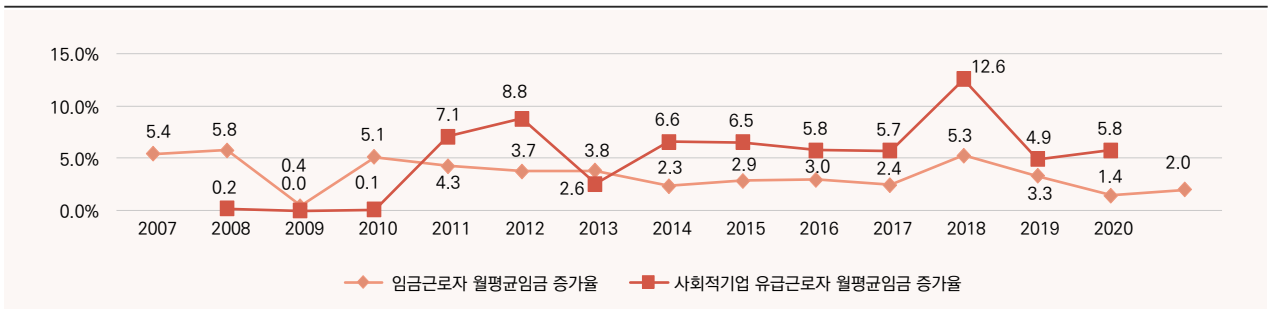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증가율 vs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월평균임금 증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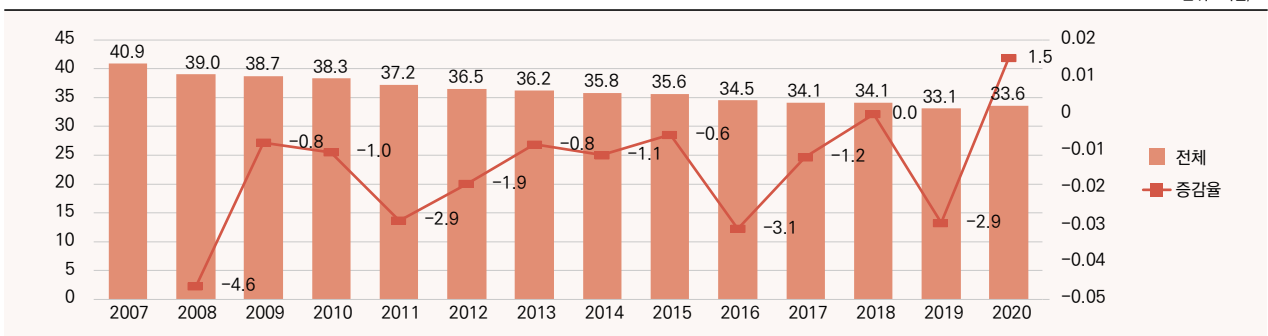


자료원: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평균 근로시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1.5% 증가하여 임금보전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 평균근로 시간 추이>

단위 : 시간, %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IV.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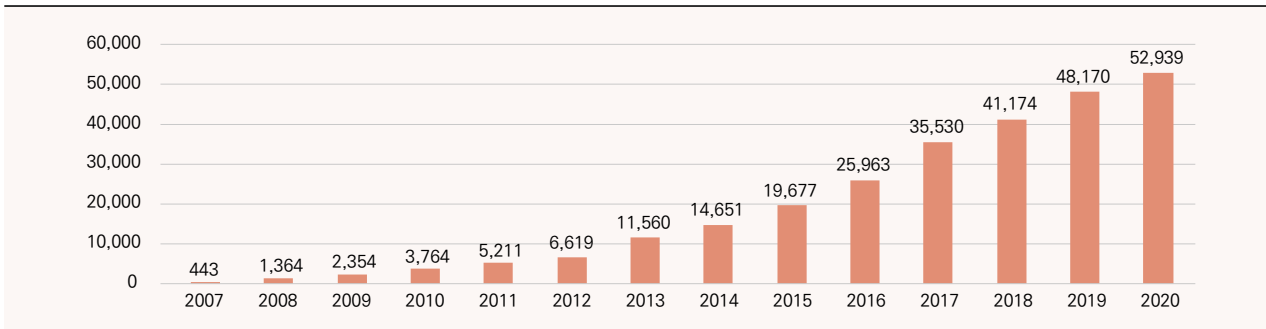
## □ 사회적기업의 영업성과와 지속가능한 회복력

- **(총 매출규모)**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종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제위기 제1,2,3기에도 총매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매출평균 및 중위값)** 사회적기업은 제1기 경제위기 시기 매출평균이 6.8억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중위값은 3.1억에서 3.4억으로 증가하였다. 제2기에는 오히려 평균매출 및 중위값이 증가하였으며, 제3기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평균매출액과 중위값이 소폭 하락하였다.

\* 사회적기업의 매출분포는 정규분포의 형태보다 소규모와 대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출평균과 함께 중위값을 비교지표로 고려함

&lt;사회적기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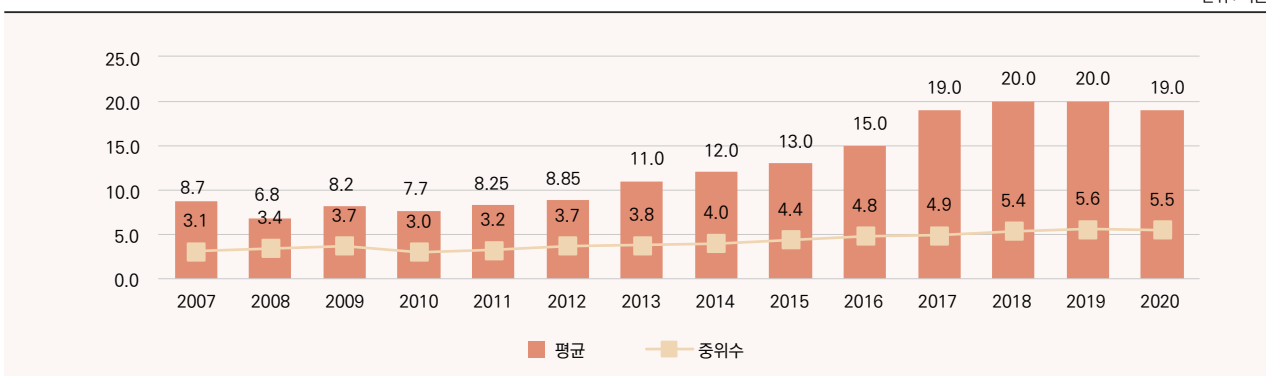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lt;사회적기업 연도별 매출평균 및 중위값&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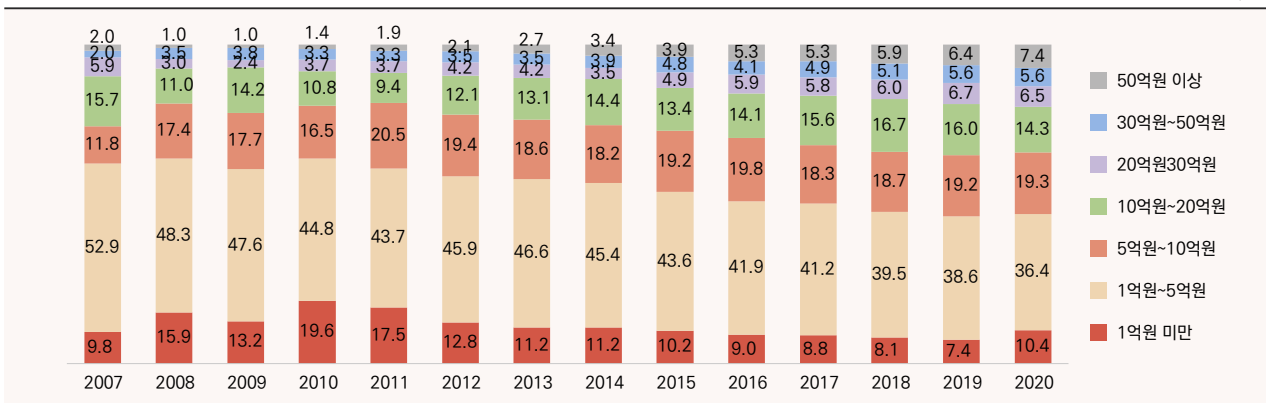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lt;사회적기업 총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gt;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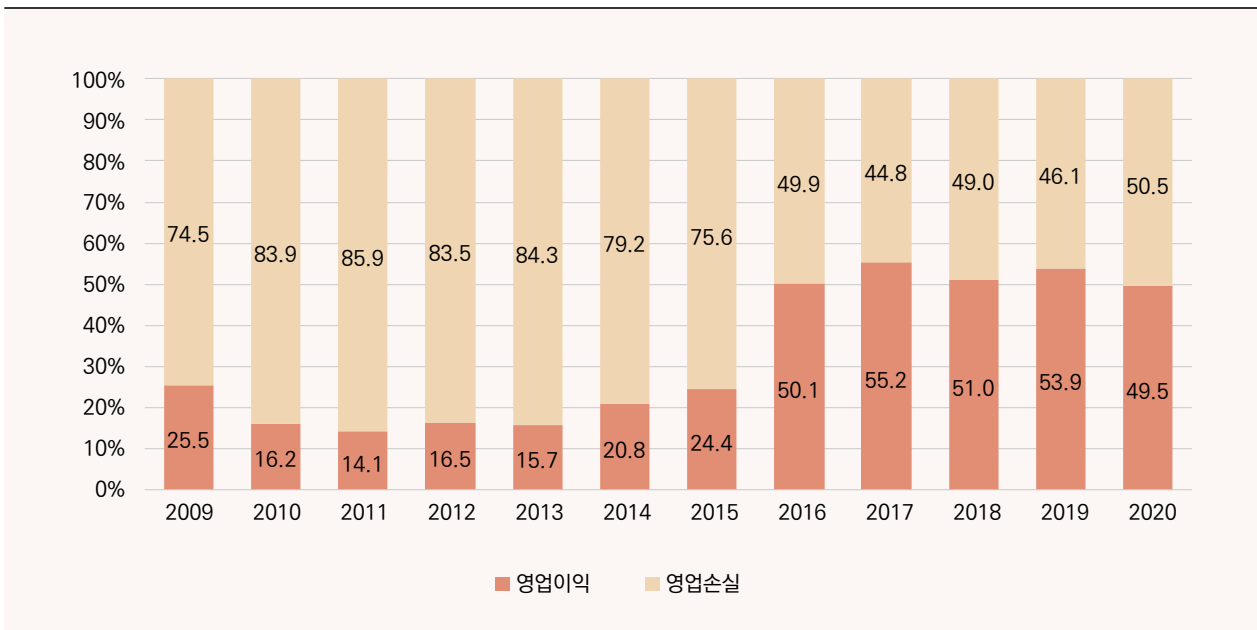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IV.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사회적기업 총매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출규모가 5억 이상이 기업이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증가하여 기업 매출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 (당기순이익 발생기업)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 발생기업 추이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3기 코로나19 위기에는 당기순손실 기업이 33.5%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영업이익 발생기업)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 발생기업 추이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3기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영업손실 기업이 증가하였다.

&lt;사회적기업 연도별 영업이익 발생기업&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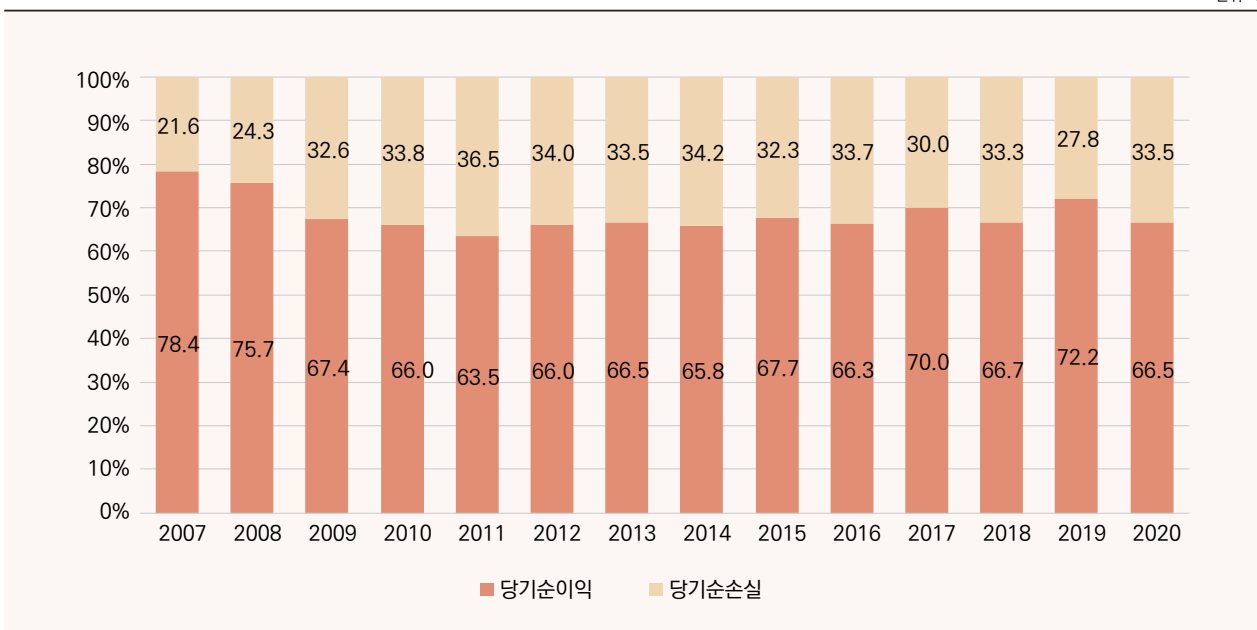
단위 : %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lt;사회적기업 연도별 당기순이익 발생기업&gt;

단위 : %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IV. 사회적기업의 경제위기와 회복력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민간자원 확보 성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지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정부 지원금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은 민간자금을 큰 폭으로 확보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년 **정부지원금은 2,547억원으로 67.6%, 민간지원금은 1,218억원(32.4%)**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lt;연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gt;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13		2018		2019		2020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정부지원	159	3.9	1,197	1.3	1,844	1.1	2,596	1.3	2,547	1.3
민간지원	미작성	미작성	356	0.1	691	0.3	795	0.4	1,218	0.5
총계	159	3.9	1,553	1.6	2,535	1.2	3,391	1.5	3,765	1.4

\* 자료원: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사회적기업 생존율)** '19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21.12월 기준 인증된 총 3,794개소 중 84.7%인 3,215개소가 운영 중 이다.
- **사회적기업 5년 생존율\*은 86.4%로 일반기업 5년 생존율(32.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 5년 생존율 추이: ('18) 79.9% → ('19) 80.8% → ('20) 79.7% → ('21) 86.4%

&lt; 사회적기업 vs 일반기업 생존율 &gt;

단위 : %

구분(기준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인증기업(2021년)	99.5	99	93.0	93.8	86.4	0
누적생존률	0	0	0	0	82.8	0
일반기업(2019년)	64.8	51.9	44.5	38.5	32.1	23.5

\* 자료원: 일반기업 생존율은 통계청 기업생명행정통계, '19년 말 기준

## □ 결론

-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 사회적기업은 경제위기 기간에도 지속적인 기업 수 및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전후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07년) 55 → ('13년) 1,012 → ('18년) 2,122 → ('20년) 2,777 → ('21년) 3,215개소

- **(사회적기업의 고용 회복력)**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경기충격에 독립적이며, 지속적으로 일반근로자 및 취약계층, 여성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총고용율의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고용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임금 회복력)** 사회적기업은 평균임금이 '20년 2,028천원으로 '07년 대비 76.4%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을 확대하여 임금 보전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일반근로자 평균근로시간: '19년 35.6시간 → 36.4시간

\*\*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19년 31.6시간 → '20년 31.7시간

\*\*\* 고용측면의 위기대응을 주로 일시적 실업(31.5%), 활동중단(18%) 근로시간 단축(14%)으로 극복하는 해외의 경우와 차별화 됨(SEE Report, 2020)

- **(사회적기업의 영업성과와 지속가능한 회복력)** 사회적기업은 총 매출 규모, 매출평균 및 중위값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매출평균과 중위값이 다소 하락하였다. 단, 사회적기업은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5억 이상 총매출액 발생 기업이 매년 확대되는 등 기업규모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다.

- 특히,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민간자원 확보로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으며,

- 5년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일반기업 생존율에 월등히 높게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인 적응을 통한 회복력을 확보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민간자원 확보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대비 '20년 정부지원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민간자원 확보금은 53.2%(1,218억원) 증가하여 정부재정을 한계를 극복하는 회복력을 보임

\*\* 사회적기업은 5년 생존율은 86.4% vs 일반기업 5년 생존율 32.1%

## □ 정책과제

- **(사회적기업 양적 규모 확대)** 사회적기업은 경제위기 기간에도 회복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하고 있다.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가 초래할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취약계층 및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 오히려 경제위기 시 사회적기업의 경제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의 질적성장 지원책 마련)** 사회적기업은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한 평균종사자 수 및 영업성과 등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있는 판로, 금융, 홍보 등의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진우·반미영·김정훈·정대영·김용준·임업·김동현(2021). “코로나19의 영향과 지역회복력”, 경기연구원.
- 권진우 · 이슬(2020). “중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경기연구원.
- 김원배 · 신혜원(2013). “한국의 경제위기와 지역 탄력성”, 『국토연구』, 3(21), p113-150.
- 우영진 · 김의준(2017). “지역의 산업다양성과 지역경기변동의 관계분석”, 『지역연구』 33(3), p3-19.
- 이재준(2011).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안정성 분석: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산업개발연구』 33,(2), pp.1-38.
- 조영복(2021). “COVID-19과 한국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미래 과제”, 『디지털융복합연구』 20(3), p113-150.
- 정은주 · 정봉현 · 나주몽(2016). “도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와 리질리언스(Resilience)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4) p87-108.
- 정혜진(2016). “경제위기와 지역의 경제적 탄력성: 경험적 분석”, 『지방행정연구』, 30(4)
- 황선웅(2009).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 『노동정책연구』, 9(1), p221-245.
- Borzaga, C. & Tallarini, G(2021). “Social enterprise and COVID-19: navigating between difficulty and resilience”,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September, 3, p73-83.
- Fiorelli, J., Gafforio, L.(2020). “2020 SEE REPORT: The Impact of COVID-19 on Social Economy Enterprises”, Social Economy Europe.
- Holling, C.(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 Systematics』, 4, p1-23.
- Kishnani, K.(2021). “Agility and Resilience in Social Enterprises-A Case Study Approach”, 『SAMVAD: SIBM Pune Research Journal』, December, p65-74.
- Martin, R., & Sunley, P.(2015). “On the nation of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Conceptualization and explan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5, p1-42.
- Social Enterprise UK(2020). “Innovation and resilience: Global snapshot of social enterprise responses to Covid-19”.
- Social Economy Europe(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social economy enterprises”, 『2020 SEE Report』.
- Sushanta, K.S., and Kunal, K.K., Sushanta, K. M.I.(2022). “Strategic response to COVID-19: how do social enterprises navigate crisis situations?”, 『Social Enterprise Journal』, doi:10.1108/SEJ-11-2021-0052.
- Weaver, R.L.(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p1-9: 10.1080/19420676.2020.1861476.
- Weaver, R. and Blakey, C.L.(2022). “Winter always comes: social enterprise in times of crisis”, 『Social Enterprise Journal』, doi:10.1108/SEJ-11-2021-0087.
- ILO홈페이지. Report VI: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lo.org)





# 2022 사회적경제 연구리포트 Vol.3

(기획 및 편집) 정책연구본부 조사연구팀  
(Tel) 031-697-7770~4

※ 본 리포트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리포트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